

2018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12.20.(목) 정오 12:0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심층성, 객관성 등 제고

- 통계보도의 정확성에 유의해야함. 통계 자료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됨. 취업자 고용보험 증가,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관련 통계는 편향적 해석 가능성이 농후함. 전문가와 정부관계자의 충분한 취재를 통해 보도해야 함(권영후 부위원장).
- 금년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지나치게 정치에 관한 보도가 많았던 것 같음. 정치가 사회 구성원들이 소망하고 수요하는 가치재들을 분배 또는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특정 정책이 갖는 사회 각 계층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 등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일 것임. 최근 통과된 속칭 강사법을 예로 들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면 보호 대상인 시간강사들의 대규모 실업과 대학에서의 혼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왜 강사법이 제정되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시간 강사 중에서도 한계선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됨(최신용 위원).
- 김정일 7주기를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도할 때 북한 중앙티비 보도문 내용을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말 한 것처럼 김정은을 주어로 사용하고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자는 의도라고 해설까지 곁들인 것은 객관적 사실 보도에 충실해야 할 뉴스가 추측에 기반한 내용으로 바뀐 것처럼 보였음. 물론 북한의 특수한 사정으로 미루어 중앙티비의 보도는 곧 김정은의 교시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김정은의 육성이나 자료 영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최신용 위원).
- 최근 청와대 민정 수석실 소속 특별 감찰관 복귀 조치와 관련하여 특정 언론을 통하여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하여 연이은 폭로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수사관 사건에 대하여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를 하였음. 이 과정에서 연합뉴스 티비는 청와대의 반론과 해명은 상세하게 보도하고 검찰 수사 상황도 제법 자세하게 다루었음. 그러나 이와 함께 다루어진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 발표가 일관성이 없어서 의혹을 자초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점을 크게 부각하지 않아 거대 권력과 대척점에서 나름대로 권력의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배려나 중립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됨(최신용 위원).
-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에서 이 정부 들어서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범죄자가 중요한 뉴스제공자로 나타난다는 것임. 드루킹이 그렇고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등이 그런 경우임. 한 사람은 민주당원이었고 다른 사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음. 야당과 반정부 매체들은 처음엔 이들의 범죄 사실을 곧장 정권의 범죄인 양 몰아감. 그런데 이들이 편지 한 장 보내면 이들을 마치 정의로운 내부고발자인 양 취급했음. 범죄자의 자기보호를 위한 의혹 남발을 여과하지 않고 보도하며 정권 차원의 스캔들을 만들어냄. 특히 김태우의 경우 야당과 반정부 매체들이 청와대를 직권남용 등 비위의 소굴로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자다. 경찰이 진행하는 지인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고, 여기저기서 항응을 받았고, 자신이 담당하는 감찰 대신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음. 야당과 반정부 매체들은 그런 김태우의 의혹 제기를 박근혜 시절 박관천 행정관의 이른바 십상시 문제 제기와 동일한 차원에서 보도하고 있음. 사건 진행은 드루킹 사기 사건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음. 드루킹은 제가 저지른 인터넷 여론조작을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으로 둔갑시키려 했음. 야당과 반정부 매체들은 이 프레임에 따라 드루킹 사건을 보도했음. 그러나 드루킹의 거짓말은 속속 드러났음. 한바탕 이 나라를 뒤집어놓고, 국민들을 오도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그라들고 있음.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이런 경험을 했다면, 김태우 폭로 보도는 좀 더 신중해야 함. 드루킹 보도처럼 폭로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고, 야당의 공세를 여과 없이 보여주어선 안 됨. 그가 범죄 혐의자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떠든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앞으로 경마 중계식 보도 대신 진상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대함.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티브이는 한 발 늦었음. 제이티비씨가 메인뉴스에 박관천 전 행정관을 초청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한국일보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의 인터뷰를 한 것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함. 아울러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여야 정치인들을 맞세워 공방하도록 하는 관행은 버리는 것이 좋겠음. 여야 공방은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의혹을 확산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보다는 의견의 편향성을 더욱 굳게 하며, 중론을 모아내기보다는 여론을 분열시키기만 함. 연합뉴스티브이가 보기에 진실로 객관적이고 엄격한 전문가나 아니면 연합뉴스의 전문기자를 초청해 사건의 성격이나 실체 따위를 따지고 분석하는 게 국민정신 건강을 위해 올바른 태도일 것 같음. 청와대 직원들이 비리 몸통인 것처럼 보도하다가 비위의 주인공이 정의의 내부 고발자로 등장. 양쪽 등장시켜. 여야. 정확하게 짚어줄 평론가 등장시켜야함. 선제규 선임기자처럼 기자가 가장 좋음(곽병찬 위원).

- 연합뉴스TV 스페셜 관련, 최근의 살인사건, 분노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방영한 거 같음. 시의적절하고 내용도 탄탄하고 한 가지 덧붙이면 성격장애, 정신적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여짐. 의학적인 접근과 심리학적 분석을 깊이 있게 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사건적인 것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됨김

석민 위원).

▲ 언론 보도의 균형 및 역할에 주의해야

- 이번 달에는 정신건강이나 장애인 관련 뉴스가 거의 없었음. 한편으로는 없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사고나 안 좋은 일이 있어야 관심을 받는 것이 안타깝기도 함. 전반적으로 너무 정치 혹은 사회 이슈 관련 뉴스가 많고, 이런 뉴스들이 반복되어 방송되다보니 식상하기도 함. 좀 더 다양한 뉴스를 적극 개발하고, 또 공정하게 보도하는 연합뉴스TV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함(하규섭 위원).
-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 관련 주요사건 보도에서 KBS는 9시뉴스 말미에 긴급 편성했지만 연합뉴스티브이는 당일 뉴스에 보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 06시 뉴스로 취급. 사건 따라잡기 보도에 치중했음(심층해설, 미칠 파장, 노후 열수송관 탐사보도 등 부재). KTX 탈선, 강릉 고등학생 가스사고 등 사회구조적이며 영향력이 큰 각종 사건사고 보도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예를 들어 강릉사고 관련 농어촌 지역 대중이용시설은 거의 규제 프리존; 전기, 소방, 위생 점검이 무방비 상태임. 전문가 긴급 출연 해설 시간에 소방문제 외 다른 질문까지 범위가 넓어 출연자가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됨(권영후 부위원장).
- 김용호 사망사고에서 사실보도, 보도자료 인용보도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함. 원청과 하청의 위험 외주화, 세계 최고의 산재발생 국가의 문제를 파헤치는 보도가 전무함. 공론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유도하는 언론의 역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경제뉴스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었으면 함. 일례로 정부가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국민소통차원에서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특별히 주재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음. 그런데도 관련보도는 주로 대통령 발언과 부총리 발언을 따서 옮기는 수준에 그쳤음.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메시지는 잘 전달되지 않음. 세간의 관심사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좀 더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조차 되지 않은 듯함.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소개조차 않고 바로 청와대 관련 스캔들 뉴스로 옮겨갔음. 최근 경제분야가 사회적 이슈라는 점에서 볼 때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주요 내용이나 특징, 의미 등을 간단히 알려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함(이경상 위원).
- 북한관련 뉴스에 우선순위가 부여된 느낌이 없지 않는데 헤드로 뽑기 전에 보도가치를 따져보았으면 함. 일례로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자 출발 640에서 헤드뉴스로 장시간에 걸쳐 보도했음. 그러나 4년 연속 채택했다는 것 외에는 화제성 낮음. 남북화해 모드인 상황에서 왜 톱뉴스로 장시간 보도했는지 모르겠음. 이어서 룡팀으로 전한 소식도 철도조사단 복귀, 공동조사종료소식

이었음. 북한뉴스를 최우선순위로 다루라는 방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한 대목임. 중요도순, 참신도순, 시청자에게 전달할 메시지 등을 기준으로 보도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이경상 위원).

▲ CG 화면구성, 자막 개선 필요

- 방송기사에서는 영상이 중요하지만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나 영상만으로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픽과 CG같은 보조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래픽과 CG는 기사의 핵심 내용을 한 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 화면 구성에 다양성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함. 특히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가 중심이 되는 경제기사에서는 더욱 그러함. 음성만으로는 내용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적 보조물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연합뉴스는 대체로 그래픽과 CG 활용에 소극적인 편인데 이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2017년 일자리 통계, 11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2018 일·가정 양립지표' 통계 등 주목할 만한 경제기사들이 있었으나 보도내용에서 그래픽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 반면 시각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보도도 있었음. 13일에 보도된 부모봉양에 대한 통계청의 의식조사 결과 기사는 부양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추이, 장례에 대한 인식변화 추이, 경제활동과 은퇴가구 소득 차이와 은퇴가구 소득원천 비중 등을 보여주는 다양한 그래픽이 동원돼 보도를 더욱 풍성하게 했음(배정근 위원).
- 뉴스 보도 시 자막 방송의 실수는 개선되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12.13 오후 6시 뉴스워치 방송 시 아나운서의 뉴스 낭독은 새로운 보도로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전 보도 내용과 관련된 자막이 뜨는 등 실수가 보였음(오준 위원장).

▲ 프로그램 편성, 기획 의견

- 9일 아침 9시뉴스의 앵커멘트의 시간이 불일치함. 지난밤 사고 보도에서 이미 날이 밝아졌는데도 '날이 밝아지면 조치하겠다'고 함. 15일 5당 정치개혁선언문 발표 현장중계가 광고시간 편성 이유로 중도에 중단됨, 타사가 현장 중계로 모두 소화한 것과 대비됨(권영후 부위원장).
- 국제뉴스 관련, 연합뉴스TV가 다른 채널에 앞서서 국제뉴스에 변화를 주는 모습을 기대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시청자들이 세계의 뉴스에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국제뉴스의 비중을 높이고 내용도 좀 더 전문성 있게 다루었으면 함. 특히 경제분야는 세계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세계경제의 동향과 우리와의 관계, 대응, 전망 등 심층적으로 다루면 좋겠음.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전문가, 특파원 등이 참여해서 국제뉴스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검토해보면 좋겠음(김석민 위원).

▲ 앵커, 인터뷰 관련 의견

- 시청자위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으로 앵커들의 시선이 위쪽으로 치우치고 매우 경직된 자세를 보임(권영후 부위원장).
- 28일 뉴스 리뷰 중 '뉴스초점' 강릉 펜션 수험생 사고에 대한 집중분석은 시의 적절했다. 부산하기만 했지 알맹이가 없는 다른 매체와 달리 진상을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음. 아울러 큰 사건이 나면 으레 따라붙은, 속세무민형 의혹 따위를 없애는데 기여를 했음. 그러나 초대 손님인 범죄전문가 배상훈 교수의 정연한 설명이나 분석과 달리 대답을 이끄는 앵커들의 서툰 진행은 효과를 반감시켰음. 질문 내용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겠지만 앵커들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전문가는 시청자들을 향해 설명하고, 앵커는 질문지를 보고 더듬더듬 읽었음. 앵커 두 명의 역할도 제대로 분담되지 않아 여성 앵커는 꺾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음. 문제는 이런 장면이 현안 분석과 관련한 프로그램에서 종종 보인다는 점. 연합뉴스티브이 앵커들에게 걸리는 부하가 다른 티브이 앵커보다 크다는 주지의 사실임. 그렇다고 이런 서툰 장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음. 예컨대 앵커 두 명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임. '뉴스초점'을 한 앵커가 맡아 혼자 진행하고, 일반 뉴스 진행은 다른 앵커가 주로 맡는 식(임광병찬 위원).
- 뉴스진행 관련,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진행자 선정과 양성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되리라 생각함. 몇몇 진행자는 상당히 여유도 있고 진행이 유연한 모습을 보여서 시청하기에 편안하기도 함. 진행의 방식에서 너무 남녀 두 사람이 똑바로 앉아 정면을 응시하면서 딱딱하게 하기보다 뉴스의 구성과 진행을 다양하게 형성해서 서서 하기도 하고 앉는 모습도 뉴스내용에 따라 변화 있게 하면 어떨까 함(김석민 위원).
- 16(일) 오전 뉴스10 중 "고액 이혼소송 급증" 제하의 보도는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시 분할 재산의 액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전문가 2명의 인터뷰(사운드바이트)를 포함시켰는데, 녹음된 전화 인터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이 불확실할 정도로 편집이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줌. 또한 그 다음 뉴스인 "전기차와 수소차"에 관한 보도로 넘어가면서, 아나운서의 소개 멘트와 기자 보도가 시작하는 사이에 불필요한 사람의 목소리가 실수로 삽입되는 등 사운드 처리에 실수가 보임(오준 위원장).

▲ 긍정적 평가

- 지난달 12일에는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보도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 주민이 자체적으로 측정해보니 화장실 선반에서 기준치보다 5배~10개가 많은 라돈이 검출됐다는 내용으로 아파트 거주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음. 많은 언론들이 이 뉴스를 받아서 보도했고, 부산시 등 관련 공공기

관들도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 역시 후속기사로 자세히 보도했음. 이 보도는 해당 아파트 시공사측이 라돈의 원인물질로 의심되는 화강석 선반을 전부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국회에서는 이른바 라돈퇴치법이 발의되는 가시적 결과로 이어졌음. 라돈 물질이 우리 일상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있음을 경각시켜주는 매우 의미 있는 보도였음(배정근 위원).

(끝).